근로청소년 88% 對話로 紛爭해결

"인간적 대우 아쉽다" 43%

서울大 金璟東교수 2천여명조사

우리나라 근로청소년의 82%는 『회사경영이 어려워졌을 때 개인의 이익을 위해 다른 회사로 옮기는것은 옳지않다』는 전통적 직장관을 갖고 있다.

이들은 회사전체가 잘되는 일이라면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참아야하고 생각하고 있다. 延世大 노동문제연구소 세미나에서 서울大 金璟東교수(사회학)가 발표한 「근로청소년의 사회의식과 노사관계연구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근로청소년들은 현재의직장생활을 보람있게 보낸다는 사람은 42%에 불과하지만 이들은 『회사경영이 어려워졌을 때 개인의 이익을 위해 다른 회사로 옮기는것은 옳지않다』는 의식을 표시하고 있다.

전국공단지역 근로청소년 2천1백36명을 대상으로 현분지조사방식에의해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청소년들은 직장의 공동체의식과 민주주의 보장에 높은 관심을 기울여 추구하고있는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중 44%는 『회사가 종업원 복지보다는 회사이익만 앞세운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인간적대우를 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43%나 된다. 이들의 노조관도 높아져 노조가 있어야 한다는 응답자가 나타났다.

노사간 갈등의 해결방법으로는 전체 88%의 응답자가 노사분쟁의 해결이 정부의 정책보다 당사자간의 대화와 타협으로 계속 경영자측과 대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대답했고 나머지 태업이나 파업, 시위, 농성등의 방법을 지지한 비율은 10%미만이었다.

金교수는 『그러나 이들의 의식속에는 어느정도의 사회적 불신감과 소외감이 깊숙이 있으며 그러한것은 어떤 불리한 조건이 작용할때는 쉽사리 부정적인 행동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생활속에서도 직장생활과 일에 몰두하고자 안간힘을 쓰는 이들에게 당연히 그들의 보수의 적정성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김장市場 2백29곳 開設

올해김장시장이 12일 서울시내 2백29군데에서 일제히 문을열었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1백76개기존시장과 53개 임시시장및 농협구판장에 김장시장개설을 허가하고 오는 12월20일까지 영업토록했다.

地下鐵 3·4호선 연장구간

年次的착공 검토

내년부터 의료扶助制 실시 22萬영세민 혜택

서울시는 지하철건설계획에 따라 교통난이 심각한 신촌~청량리간 4조선 연장구간의 추가건설을 연차적으로 착수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서울시의계획은 앞으로 3년후인 88년에는 서울의 교통인구가 1천2백만선을 넘어설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하철 3·4호선 연장구간을 조기에 건설, 교통난을 해소하려는 것이다.